

# 주체사상 학생토론회 발제문(2001년, 서울대학교)

민족해방



사회: 신호철(대학신문 편집국장)

토론자: 김지은(고려대 총학생회장)  
이꽃맘(홍익대 동아리연합회장)  
장종오(서울대 총학생회장)  
박무웅(한양대 부총학생회장)

제목: 주체사상 학생토론회 발제문  
부제: 이북 민중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는 김일성 주석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지은

## 1. 수령제를 모르고 이북을 알 수 없다.

민족의 절반을 올바르게 이해하자는 주장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솟아나고 있으며, 학생은 물론이요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심지어는 재벌들이나 정부단체에서도 '이북바로알기'는 하나의 시대적 선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볼라치면 예전같은 악의적 왜곡이나 비방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정보와 빈약한 연구성과를 나열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몇가지 현상들에 대한 소개에 그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의 잣대 또한 '객관'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이나 '효율'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철학이 그 바탕이 되곤 한다. 그러다 보니 예전같은 일방적 비난은 줄어들었으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 가장 첫 번째로 이북사회를 비방하는 또는 왜곡하는 측면인 '수령제 중심의 사회'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북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가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정치집단의 최고정점에 수령이 서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북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도 이것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수령제'이다.

과연 이북은 봉건 절대왕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 사회적 효율이 극도로 억제되고 있는 사회인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 2. 적어도 그들에게는 진심을 다해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다. - 우리에게는 있는가?

우리 국민만큼 '정치'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국민도 드물다. 멀리는 고대와 중세의 절대왕정에서부터 가장 근래로는 군사독재에

이르기까지 이 땅위에 존경받을 만한 정치체제가 성립되었던 기억은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역사적 시점이 현재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상황은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하지 않다.

당연히도 온 국민, 전 민족의 존경과 신뢰, 애정을 받았던 정치적 지도자는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에 있어 '정치'라는 단어는 '폭력과 독재'나 '사기와 협잡'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으며, 전국민적 공분의 대상 1호에는 언제나 부패한 정치권이나 정치인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런 우리의 입장에서 한 정치지도자가 서거한 지 불과 17시간동안만에 수도로 30여만, 전국의 도소재지들에 각각 20여만이 넘는 군중이 모여들어 조의를 표시한 현상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온국민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그 정치지도자의 동상에 하루 220만이 모여 10여 일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성통곡을 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집단 히스테리'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튀어 나왔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있었던 수많은 놀라운 소식들을 김주석에 대한 우리의 색안경을 벗고 상식적으로 대한다면, 그 국민적 추앙만을 놓고 볼 때, 사실 인도의 '간디'나 가깝게는 '김구' 선생 정도가 비교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정치가 불안한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김주석의 사망이 반대파나 그를 추종하는 다수 민중의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졌는가 했을 때, 사실은 그 정확한 반대였다. 이북은 3년 동안 흡사 전국이 상가인양 보였고 김주석에 대한 추모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있음은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상황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김일성 주석이 진정 온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이북 민중들의 정치적 지지는 우리의 일반적 오해와는 달리 사전이든 사후든 공고한 그 어떤 기반위에 서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전국민이 존경할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강압과 조작에 의해 그 존경이 표현된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정치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첫 번째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도대체 얼마만한 탄압과 조작이 있어야 한 지도자에 대한 2천만명의 한결같은 존경을 50년 동안 만들어 낼 수 있는가?

만약 김주석에 대한 지지가 그런 조작과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이북에서 정권과 지도자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민중행동이 김주석 사전이나 사후에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런 징후는 별로 발견할 수 없다. 완전한 통제사회여서 그렇다는 이야기들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행동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역사상 봐온 많은 독재의 경우에 그러하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첩관통치와 대량학살이 자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북에서 '킬링필드'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은 이북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조차도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하다못해 이북이 싫어서 도망 나온 탈북자들 - 이북이 싫어서 나온 소수의 정치적 의미의 탈북자가 아닌 식량난으로 인해 중국으로 나온 다수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장군님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인다고 한다. 결론은 단순하다. 2천만 이북민중 모두가 바보이거나 아니면 실제 김주석의 업적이 2천만 민중을 감동시켰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2천만 이북민중 모두가 정치지도자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쪽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들은 전국민이 존경할만한 지도자를 가졌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북민중들의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이러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바탕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이러저러한 부정적 경험에 근거해 이북 민중들의 진심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을 참시라도 중단하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접근해 보자. 진실은 무엇인가?

### 3. 그들이 말하는 김주석 1 - 민족독립의 영웅,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선구자

좀 더 말해 보자. 우리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선열들에 대해 전국민적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직접 총을 들고 일제와 싸웠던 독립군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처럼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된다. 만약 그런 경력을 가진 이가 정치를 한다면? 남한 지배층의 근원을 이루는 친일파나 지주출신이 아닌 농민출신의 독립군 사령관이 정치계에 나섰다면? 답은 뻔하다. 사실 김구선생에 대한 전국민적 존경은 우연한 어떤 것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이 10년 넘게 멀리 상해가 아닌 백두산 근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보천보 전투같은 국내 진공의 경우 일제당시 언론통제하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은 학계의 공인된 사실이다.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한 남북의 극적대비는 이북 민중들의 김주석에 대한 존경심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친다면 이북의 동포들이 과거의 추억만을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 되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그럼 그런 김주석이 이북사회주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점 역시도 명약관화하게 밝혀져야지만 50년의 통치를 설명할 수 있다. 해방 후 식민통치로 낙후할 대로 낙후한 조선 땅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경제의 면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일 것이고, 정치적 면에서는 '근대적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수립'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면만 보면 이북에서는 이것을 '이밥에 고깃국먹고 기와집에서 사는' 문제로 이야기한다. 남한의 '잘살아보세' 역시 앞서 말한 이북의 근대화 목표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럼 많은 부작용들이 지적되고 있는 남한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북의 근대화 과정을 이해해 보자.

남한의 근대화 과정은 무엇보다 유혈적인 민중학살을 그 바탕에 두고 있었다. 토지개혁은 농업의 근대화를 이루었다기 보다 많은 농민층을 분해해 도시로 유입되게 했다. 끝없이 이어지던 이촌향도의 행렬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투입되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내함으로써 남한자본의 원시축적의 길을 열었다. 수많은 '전태일과 그 어린 친구들', 'YH의 여공들', '원풍모방의 여성노동자들', '원진레이온의 희생자들' 이 그 적나라한 표현이다.

두 번째 남한의 근대화 과정은 철저히 외세종속적이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중공업 등의 시설들은 당시 설비노후, 이윤율저하, 공해의 심화 등을 이유로 버려지다시피 말려진 미국과 서유럽의 설비들이었다. 자본, 기술, 시장 등 값싼 노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요소들을 외세에 의존한 근대화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들이 철저한 정치적 폭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보통치, 제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 민중항거에 대한 유혈진압 등으로 이런 왜곡된 근대화에 대한 민중의 반발을 억눌러왔다. 이에 비해 이북의 경우 농업을 희생시켜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중공업발전을 위해 외세에 의존하는 남한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면서 이를 위한 설비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기술로 해결하는 독특한 경제노선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농업 기계화를 위해 외제 트랙터를 들여와 손으로 부품을 일일이 깎아서 만든 트랙터가 뒤로만 가더라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북한은 58년 1정보당 3대의 트랙터를 갖춘 농업기계화 국가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미 60년대에 이북의 경제는 남한을 능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농업의 협동화과정에서 여느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자원성의 원칙에 따라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개인농을 협동농장으로 망라하는 방식을 취했고 공업화의 과정에서 8시간 노동을 비롯한 노동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많은 노동자들의 지지를 획득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고가 유독 잦아 많은 노동자가 희생된 원산의 용광로를 폭파한 것 역시 널리 알려진 일화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북 민중들은 김주석을 식민지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10여년 동안 동만주의 북풍한설에서 사선을 넘나들던

민족독립의 영웅이며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민족자주와 민중중시의 이념에 기초해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불굴의 정치적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미처 배우지 못했던 해방후 미완의 역사청산과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저러한 남한 사회의 정치적 낙후성이나 부패성이 이런 첫출발부터 잘못되어서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한번쯤은 다 가져보았으리라. 게다가 그런 정치적 정통성의 부재나 그로 인한 낙후성을 가려줄 구실이 되곤 하던 경제발전도 사실 위에서 본대로 요모조모 따져보면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 외국자본이나 기업의 작은 움직임에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매일 불안해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이에 비해 이북 민중들은 비록 경제적 어려움을 좀 겪을 지 모르나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갈 결정권을 가진 자주강국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망국의 설움에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며 정치적 박해에 시달린 서러운 민족에게, 민중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회주의 자주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는 이북민중의 절실한 염원의 반영이 아니었을까? 또한 민중의 염원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민족자체의 창조적 열정을 발휘하게 하는 김주석의 뛰어난 지도력이 바로 이북 민중들의 김주석에 대한 유다른 애정과 신뢰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 4. 그들이 보는 김주석 2 - 인생의 스승, 영원한 벗

식민지 민족해방의 과정에서, 사회주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이북민중들 스스로 신화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화들은 쌓이고 쌓여 이북민중들의 집단적 가치관의 원형질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것이 김일성 주석 개인의 성공담이나 건국신화로만 그친다면은 그것은 누군가 대신 꾸어주는 꿈이나 누구를 동경하는 마음일 뿐이며 자기자신의 신화로 집단전체의 신화로 승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북민중들의 김일성 주석에 대한 흠모와 존경은 그 이상의 것이다. 92년 복송된 이인모 노인의 이야기는 이런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 하나의 고려점을 던져주고 있다.

"... 만약 장군님(김주석을 존경하는 이들은 김주석을 이렇게 부르곤 한다)이 나를 조국광복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망국의 비애를 간직한 식민지 청년학생에 불과했던 내가 어떻게 도교와 중국, 조선을 넘나들며 조국광복을 위한 성업에 몸을 바칠 수 있었겠는가..."

또 하나, 휴전협정당시 북측대표로 나왔던 한 장성의 기자회견록의 일부는 더욱 깊이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 인간은 침략자의 가혹한 만행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동지가 높이 추켜든 인간해방, 민족해방의 위대한 리념의 정당성을 생활을 통해 체험한 우리 민중은 가렬한 전쟁 속에서 불굴의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듯 독립운동의 과정으로 시작해 간고한 사회주의 근대화로의 전진을 향한 길에서 이북민중들은 김주석이 자신들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의 고지를 제시했고 그 길로 가는 가장 위력한 방법, 가장 빠른 첩경으로 그들을 안내했으며 그 길에서 예전에 하나의 통치의 대상, 생산의 도구에 불과하던 노동자와 농민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경제의 담당자로 우뚝 세워 불굴의 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로 성장시킨 스승이요, 동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된 것이 민중의 요구만이 세상을 변혁할 꿈을 주며, 민중의 힘만이 세상을 바꿀 힘이 될 수 있다는 주체사상이고, 그 사상적 진군의 길에 언제나 자신을 가장 먼저 던짐으로써 민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세운 지도자로서 김일성 주석을 존경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지도자와 민중의 정치조직인 당과 민중전체가 하나로 융화된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구성이라고 말한다. 즉, 지도자가 전체 국가와 사회의 나아갈 길을 민중과 밀접히 결합한 상태에서 목표로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주도적 정치집단이 가장 헌신적으로 그 성공을 위해 앞장서며, 그 과정에서 민중들은 지도자와 공고히 결합된 정치집단의 지도에 따라 열정적으로 나섬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실질적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그들은 수령과 당과 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공고히 결합된 생명체로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도자는 민중을 주인으로 세우며 민중은 지도자를 그 과정의 최선두 지휘자로서 신뢰하는 지도자와 민중간의 유기적 결합은 이런 사회정치적 생명의 전제조건이다. 이런 독특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해석과 그것이 가져오는 정치적 통합력의 극대화가 이북을 현재로서 몇 년의 경제적 고립과 군사적 압박에도 굴함없이 자신들만의 노선을 지켜온 힘이라는 평가는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유례없는 경제적 고난과 군사적 압박 속에서 고립에 가까운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별탈없이 타개해온 저력이 사실은 수령제 사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외부 관측 통들도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그 체제의 정치적 결합의 공고함만을 혀를 내두르며 인정하고 있다. 그 과정상의 난관은 이북 민중들과 지도자 사이의 굳건한 신뢰를 의심케 할만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그들의 신뢰를 도드라져 보이게 한다는 편이 맞는 말일 것이다.

#### 5. 존경할만 한 지도자를 가진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듯 정권형성 과정에서의 정통성에서나 이후 사회주의 근대화의 과정에서나, 또한 그의 정치적 능력과 업적에서나 인간적 면모에서나 이북 민중들의 가슴에 적어도 김일성 주석의 이름이 강렬하게 새겨져 있음은 무엇으로도 부인하기 어렵다. 김주석은 적어도 이북민중에게 있어서는 민족독립의 영웅이요, 사회주의 근대화의 기수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민중과 가까이 함께 한 절친한 벗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한사람의 정치지도자가 그가 이룩한 업적에서 뿐만아니라 일생을 통해 전민중의 인생의 스승으로 영원한 동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지도자 개인에게도 무한의 영광이겠지만 그런 지도자를 가진 민중의 입장에서라도 뿌듯한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김주석에 대한 이북민중들의 신뢰와 존경에는 이러한 나름의 이유들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제 지도자와 민중간의 그 인간적 관계의 진실됨에 대해서 유독 '김일성'이라는 이름하나를 이유로 상식에 기초한 판단을 왜곡하는 것은 남북화해를 위해서라도 없어야 한다. 사실 온 국민이 존경할만한 이를 가졌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우리는 이북의 수령제 사회를 비난하기에 앞서 그런 정서와 사고체계에 대한 실사구시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 과정에 밝혀진 이러저러한 상식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나 더 나은 정치 지도자상을 정립하고 그런 지도자를 민중의 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력들은 시급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령제 사회의 진실에 대해 이제 두려움 없이 다가가야 하지 않겠는가?

김정일 시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1. 장기집권은 필히 독재로 이어진다?

오래 된 것은 썩기 마련이라는 말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과일이나 채소는 오래되면 썩게 되지만 친구나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좋다고 하지 않는가? 이렇듯 같은 말도 세상만사의 적용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법이다.

그럼 정치인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어떤가? 우리의 상식은 오래된 정치는 부패하기 마련이고 장기집권은 독재와 동등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장기집권자는 독재자가 되지만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오랜 집권자들은 오히려 그 오랜 집권기간 자체가 국민의 지지를 대변해주는 영광의 선사물과 같은 것이 되며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들은 대개는 국부나 국민적 지도자로 칭해지기 마련이다. 장기집권이 필히 독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민중의 뜻을 거스른 정권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 그렇다면 굳이 장기집권이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는가? 억지 준향식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너절한 권력다툼보다는 오히려 안정적 통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정치권력에 대한 민중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그것이 지금같은 불신이 아닌 신뢰에 바탕이 된다면 질 낮은 정치권들의 나눠먹기식 선거놀음보다는 더 나은 무엇이 될 수도 있다.

## 2. 후계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고 어떻게 한사람이 천년만년을 이어갈 것인가?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결국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정치지도자의 등장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이런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명석한 두뇌와 아버지의 업적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상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로 일찍부터 후계자로 거론되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아들에 의한 정권이양이요 결국은 봉건적 세습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민주화의 기수는 남편의 뒤를 이은 아내였으며 버마의 아웅산 수지여사는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이며 인도의 명 여수상 간디는 초대수상 네루의 딸이었다.

사실 부모의 후광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핸디캡이 되기도 한다. 봉건유제에 대한 정치간부들과 인민들의 반발감이 심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아들이라는 것이 꼭 장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노동당 정치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김일성 주석은 반대하였다고 한다. 아들이든 딸이든 정치적 품격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이리저리한 말들이 나게 마련이며 결국 견잡을 수 없는 권력투쟁으로 휘말리는 경우들도 많지 않은가? 현대사회에서 역시 정치적 신뢰의 기본은 당자의 정치적 품격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 3. '주체형 혁명의 계승' - 3대 혁명 운동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이북 사회주의

무엇이 이북의 인민들로 하여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사회주의 사회의 2세대 지도자로 선택하게 하였는가?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도 존경해 마지 않는 김일성 주석의 민족자주, 민중중시의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위대한 정치이념을 계승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일 터이다. 좀더 단순화하자면 주체사상의 계승발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된 업적으로 주체사상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이북사회의 통치이념으로 공고화한 것을 가장 먼저 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3대혁명 운동 과정을 보자. 보통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업화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나면 당간부들은 관료주의로 세도를 부리게 되고 인민들 사이에서 풍족한 물질문화 생활에 젖어 어려웠던 시기의 혁명적 정신이 퇴색하게 되면서 생산이 정체되고 정치적 통합력이 떨어져갔던 예들은 비일비재하다. 나중에 이런 과정들이 사회주의 사회의 붕괴로까지 발전했다. 이북의 70년대가 이런 위험을 예고할 수 있는 시기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산량이나 배급량의 많고 적음같은 이기적 물질적 동기에 의해 사회주의가 건설된 것이 아니라 전체사회, 전체 민중의 발전을 바라는 인간의 높은 사상적 지향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게 될수록 당간부들이나 민중들이나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게 된다는 것을 주체사상의 혁명적 원리로 체계화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경제토대가 확립되고 정치제도가 수립되었다 할 지라도 더 높은 수준의 민중의 요구는 낡은 사회의 사상적 낙후성, 기술적 낙후성, 문화적 낙후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더욱 발전해 가게 되고 이를 위한 계속혁명 계속전진인 사회주의 사회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한다는 3대 혁명이론을 내놓았다. 우선은 당 간부들과 인민들 사이의 보수주의, 소극성, 관료주의 등을 타파하는 전국적 운동을 벌임으로서 사상의식상에서의 정체를 타개하였다고 평가되며 여기에 사회주의의 공고한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현대화 과학화하는 작업이 더해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화, 음악, 혁명가극 등의 문화운동의 고양에 합쳐져 사회주의 사회의 계속혁신 계속전진이 일어났다고 그들은 말한다. 무엇보다도 70년대부터 경제적 정체를 면치 못하고 정치적으로 후퇴해간 중국과 소련에 비해 이북은 권력을 탐하는 당간부를 배척하며 물질적 이기적 동기로 움직이는 민중의 부정적 측면을 억제하고 민중에 대한 당간부들의 헌신성과 민중들의 전체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주력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사상사업의 강화'이다. 이런 것이 수대한 사회주의의 붕괴가 연이었던 때에도 이북만은 그 흐름에서 비껴서 자신들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닦아 왔으며 이 최선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있었다고 평해진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북 민중들 사이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로 불리우게 되었다.

## 4. 고난의 행군 그후의 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 김정일 시대의 개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요한 업적들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 즉 3대 혁명으로 이야기되는 주체사상의 노선에 따라 이북사회를 사회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 가장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근년에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김일성 주석 사후의 이북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 하는 것이다. 이전의 문제는 사실 김일성 주석의 아직 살아있을 때여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정확히 밝혀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었고 김주석 사후 미국의 대북압박과 식량난이라는 외우내환을 맞아 이북의 행보를 예측함에 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버지만한 카리스마가 없으니 온실의 화초나 다름없는 존재니 하는 구구한 억측들이 많았다. 이런 억측들은 필연코 이북붕괴론과 그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김주석 사후 6년이 된 지금에서 이북은 식량난을 어떤 정치적 타협없이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압박에 맞선 자주외교와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실력, 군사적 실력의 바탕이 되는 인공위성개발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상의 도약으로 일약 동북아

의 작은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미국은 물론이요 일본과 서유럽 제국들이 앞다투어 이북과의 수교를 희망하는 현실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북은 98년 인공위성의 발사로 최강 군사대국 미국의 위협에 맞서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국가로 떠올랐다. 이는 그동안 이북사회주의를 고립압살의 대상으로 보고, 중국을 견제의 대상으로 여기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해 끊임없이 자신의 군사적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미국의 구도에 대한 큰 충격이었다. 결국 이런 과정은 남북정상회담과 맞물리면서 이북에 대한 미국의 타협, 일본의 인정, 남한의 접근이라는 상호인정과 호혜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창출할 출발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런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초에는 남북화해를 바탕으로 조국통일의 진전이라는 민족적 열망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이 놓여져 있다. 이 과정에서 서방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여준 군부에 대한 확고한 장악, 인민들의 변함없는 지지, 아버지 못지 않은 카리스마와 담대한 기획력과 추진력 등으로 표현되는 정치력 등을 김국방위원장의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다. 혹자들은 21세기 한반도에는 통일한반도와 동북아 신질서를 주축으로 하는 김정일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나름의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서방의 언론들은 매일매일 북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각종 기사를 내놓기에 분주하다. 고난의 행군으로 함께 해온 이북민중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반세기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할 민족의 지도자로, '미제국주의'의 고립압살 위협을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무력화시킨 국제적 정치가로 인식시키게 되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극심한 자연재해와 식량난, 김주석의 사망이라는 내우외환들을 이북민중들과 함께 공고히 단합해 오히려 '북'으로 바꾸어 놓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북 민중들의 지지는 매우 공고한 수준의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바탕해 이북민중들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향해 자신감있게 나아가고 있다.

## 5. 글을 마치며

앞서 밝힌 사회주의의 정체와 붕괴의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군사적 압박, 경제적 봉쇄, 사상문화적 침투가 손꼽힌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회주의 국가를 그 대상으로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세계적 범위에서 이들 서방국가에 의존하던 - 좀더 정확하게는 식민화되어 있던 -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는 이런 서방제국의 무차별적 침략 아래 무참히 짓밟혀 왔다. '빈곤의 세계화'라는 악명으로 불려온 IMF를 필두로 한 제국주의의 경제침략은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을 기아선상으로 떨어뜨려 놓았으며, 풍부한 자원부원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인플레이와 외채의 천국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중동과 중남미에서 이런 세계화와 결별하고 독자적 노선을 고수해온 나라들의 경우 예외없는 봉쇄와 압박,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침략의 대상으로 전략하기도 하였다. 실로 지난 20여년 동안 서방을 제외한 전세계 국가들은 기아와 빈곤이 아니면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

그나마 정치적 이유로 이런 직접적 경제침략이나 전쟁놀음으로부터 제외되었던 동남, 동북아시아 국가들마저도 제국주의 경제의 모순이 폭발한 90년대 후반에는 직접적인 경제적 침략의 대상이 되었고 국제투기자본의 도박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대신 주어진 것은 제국주의 문화산업의 찌꺼기이거나 말그대로 '모험'에 불과한 벤처산업이라는 것이다. 국적없는 세계화에 자본은 통제불능의 속도로 전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삶의 안정도 풍요로움도 모두 한때의 백일몽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현실이다. 이런 자본의 무한대의 세계화 앞에서 이북사회가 택한 길은 조금은 무모해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민족의 주체적 결정권이나 민족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세계화는 미국식의 일체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자립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상황 자체는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의 '고립'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이북의 붕괴는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었다. 이북의 식량난, 경제난을 접한 수다한 소식통들은 그들의 무모함을 조소하기에 바빴다. 결국 약소국 민족의 운명은 '세계화, 일체화'의 횡포 앞에 아무런 방어막 없이 내던져지는 것이거나, '주체성과 민족성'을 주장하며 실제로는 '고립'을 면치 못하고 고사해 가는 것이거나 둘중의 하나인가라는 절망적 물음이 팽배했다.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의 1차 충격, 남북 정상회담의 2차 충격, 연이은 북미, 북일간의 접근, 남북관계의 쾌속의 진전 등을 보고 있노라면 하루하루의 시대적 변화가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뿐이다. 서방의 언론들은 이런 과정을 두고 '김정일의 화려한 국제무대 데뷔'라며 연일 감탄을 연발해 내고 있다. 현실은 이북민중들이 주장한 '주체성과 민족성의 고수'는 위기에 몰린 폐쇄국가의 자기 보호와 위장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서방국가 중심(사실은 미국중심의)의 '일체화, 세계화'가 아닌 나름의 '자기식', 그들이 말하는 '우리식'의 내외적 발전 모델이 헛된 망상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민중의 생존과 경제를 희생한 채 정치군사적 자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국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며 자신의 페이스대로 적절히 국제사회와 교류협력해 가는 '자주에 바탕한 호혜평등'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북사회가 '세계화'된 오늘에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민족 주체적 발전 경로는 과거 식민지 시절의 독립으로부터 자체 민중의 요구와 능력에 바탕한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거쳐 독특한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북 민중들은 자랑스레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민족자주, 민중주체의 발전 경로의 고비마다 민중과 공고히 결합된 지도자와 당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결합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어디까지가 실제적 진실인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모색과 탐구의 나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에 대한 이북민중의 신뢰는 공고한 것이며 그 힘이 동북아의 작은 사회주의 국가 이북을 위기마다 자신나름의 항로를 따라 난파하지 않고 헤쳐나온 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민중들의 신뢰의 바탕에는 민중의 힘을 신뢰하고 그들의 힘을 극대화시킨 독특한 지도방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하고 적극적 접근과 철저한 실사구시가 요구된다 하겠다. 메마르고 물인정하기 짝이 없는 비정한 세계화의 흐름앞에 민족의 갈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반쪽이 걸어진 길, 그리고 그 경로의 원동력인 수령제에 대한 전반적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북의 군사 철학에 대하여 부시 정부의 북한 위협론을 시작으로 잠시 종결된 듯 했던 미국과 이북의 대 회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NMD 폭풍을 한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이북과 미국의 대화전은 벌써부터 군사 전략가를 비롯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계가 그 의미 이상으로 열광적으로 관심을 보내는 것은 겉으로는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두 나라의 대결 양상 때문이다.

과연 제3세계 나라들이 열광하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이북의 군사력, 세계 최강 미국에도 주눅들지 않는 이북의 군 사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기회에 이북의 군 사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에게 미사일이 없었다면..

이북의 군 사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55년 동안 이북 민중들이 겪어 왔던 고통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호전성으로 덧칠된 이미지나 편견이 아닌 진정한 이북의 군 중시 사상의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북의 사회주의 건설사는 눈물로도 다 쓸 수 없는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길이었다. 그들의 고난은 그들이 누구를 침략하려 했기때문이 아닌 오로지 사회주



의라는 자신의 이상과 신념(미국과 구미 열강의 의사에 반하여)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다.

책 한권을 써도 모자랄 지경이나 이북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통제되어 남한 사회의 현실상 10년 쯤 미국에 의해 봉쇄를 당하고 있는 이라크의 현실을 통해 이북의 처지를 유추해 보자. 이라크는 걸프 전쟁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의해 경제 봉쇄를 당해 왔다. 그 10년의 기간 동안 이라크에서는 매 달 4500-6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죽어갔고, 10년 동안 60-70만명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학살 당했다. 거의 모든 품목의 약품 반입 미국에 의해 봉쇄 되었고 부모는 눈 앞에서 죽어가는 어린 자식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악마적 행위는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만들 만일의 하나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분 아래 이루어 졌다. 10년의 봉쇄를 당한 이라크의 처지가 이렇진데 55년을 봉쇄 상태로 살아온 이북의 민중들이 고난의 속곡에 의해 단 한 채 건물 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평양 시가지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면서 감수해야 했을 고통과 고난은 어떤 것이겠는가? 이북 민중들에게 자주국방이란 단어는 생존을 뛰어 넘는 그 어떤 절박한 요구였을 것이다. "우리에게 미사일이 없었다면 지난 유고 전쟁에서 미제의 대포밥이 되는 것은 유고가 아닌 한반도였을 겁니다."라는 섬뜩한 말에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이북 인민들의 고난과 희망이 담겨져 있다. 한반도에서 핵참화를 막아내기 위한 담보, 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최소한의 삶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조건, 그것이 바로 이북 인민들의 가슴 속의 군대인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총대를 놓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시적인 위협속에서 사회주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객관적 현실에서 나오는 이러한 요구로 이북의 군 사상을 다 해설할 수 있는가? 아니, 그것만으로 이북인민들이 군대를 대하는 자세를 모두 다 해설할 수는 없다.

고난의 행군 실록과 식량원조를 위해 이북에 갔던 선교사들의 방북 기록은 자식들이여 미래를 위해 싸우라고 말하며 노부모들이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을 택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과연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칠만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미래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죽어도 군량 창고를 열지 않는가? 이북의 군 사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그 무수한 고통을 감내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남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바로 이남 사회와 이북 사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정신과 사상의 차이이다. 한 군사학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민족을 이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산에서 혈투를 벌이며 살아오던 "이리"족 중 일부가 산을 내려 "개"가 되었고 일부는 이리족으로 남기를 각오했다. "개"가 된 이들에겐 "이리"로 살기 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로운 면이 있었다. 무엇보다 의식주가 확보되었다. 미국쇠고기가 듬뿍 들어간 먹이가 주어져서 제네럴 엘렉트릭사의 에어컨이 갖추어진 우리가 주어진 것이 주어졌고 미제의 화려한 개목걸이도 주어졌다. 그러나 산에 남아 저항을 계속하는 "이리"족의 장단들에게는 겉 쌓이는 난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냥감도 없어 배고픔을 견뎌야 할때도 있었으며 눈속에서 어깨를 서로 모아 참아야 할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리"로 남아서 저항을 계속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자유롭게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배가 고파도 제마음대로 살수 있으며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백두산의 광대한 원시림과 광야가 성역으로 되어 자유롭게 날아 다닐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비유처럼 북한은 애초부터 이리와 같은 강진한 자유의사를 가진 국가이며 어떤 역경도 이겨 내고 살아남는다. 투항을 거부하고 끝까지 무장을 놓지 않았던 항일 무장 투쟁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리"족, 이북 사회에서 항일혁명군의 강건한 저항정신은 온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상이며 항일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 내었던 군민 일치의 경험은 사회를 운영하는 거대한 운영원리로 되었다. 이북 민중들에게 군대는 이미 스스로의 체도를 지키기 위한 자위력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하나의 사상이며 도덕이요 가장 친근한 벗이 되었다. 그래서 이북 민중들은 어려울수록 군에 의지했으며 굶어 죽어도 총대를 놓지 않았다. 이북에서 군대는 이북 인민들의 최소한의 삶과 자유를 지키는 보루이며 동시에 하나의 사상이다. 군대는 인민의 사랑속에 자라며 안정 쓴 자는 군대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군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는 뜨겁기만 하다. 미국의 힘에 의거해 나라를 찾겠다고 해외를 전전하던 자를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고 일본 관동군 소좌를 대통령으로 떠 섬겼던 치욕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남 사회 사상으로 분명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군부란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민중을 학살하는 데에서나 제 역할을 했을 뿐 정작 민족의 자존을 유린하는 외세 앞에서는 한없이 측은하기만 했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또한 생각할 수 없는 군 사상이다. 똥똥하게 살은 찼으나 개목걸이를 목에 걸쳐 줄에다 묶여있는 "개"와 배는 고프나 자유롭게 다니는 "이리"의 어느쪽이 더 좋은가? 이북의 민중들이 미국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 민족 전체에 던지는 이 메시지는 일본 교과서로 우롱 당하고 미국의 nmd 계획으로 바보 취급 당하는 이남의 처지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메시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남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식의 이분법 적인 논리를 떠나 진정한 이북의 군 중시 사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성찰의 결과는 오늘 우리 민족 남남부가 처한 예측적 현실에 대한 저항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도 민족의 자존을 지키기위해 55년을 싸워 왔던 이북 민중들에게 무어라 내어놓을 말이 있어야지 않겠는가?

## 선군혁명령도와 제2의 천리마 대진군

1990년 말 북(조선) 정세인식의 초점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1) 들어가는 말

서방세계는 세기의 전환기를 '개방의 시대'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북(조선)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조선)은 오늘의 정세를 더 강대해진 제국주의와 더 시련을 겪게된 동방의 작은 사회주의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활을 건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조선)의 정세인식에 따르면, 지금 "제국주의는 <공산주의의 종말>을 떠들면서 온 행성이 제 세상인 듯 살판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 총비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의 보루로 되고 있"으며, "우리는 사회주의의 보루를 지켜나가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북(조선)은 "그 모든 연대들 가운데서 가장 잊을 수 없는 1994년-1998년"의 기간 동안에 제국주의와 벌여온 사활을 건 싸움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억측도 후방도 없이 걸어온 간고한 행군길"이었다. "4년이라는 세월이 길다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의 높이에서 뒤를 돌아다볼 때 걸어온 그 길이 너무도 어렵고 험하였기에 몇십 몇백년 맞잡이로 추억된다"고 한다. 이 기간이 저들에게 그토록 엄혹하고 힘들었던 까닭은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제국주의 떼무리들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 보루를 수호해야 하는 고군분투에 <전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식량난과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까지 겹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인민은 여러 해째 계속된 <고난의 행군>길에서 가슴 아픈 일을 수없이 겪었"으며, "지난 몇해동안의 <고난의 행군>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 못지 않은 엄혹한 시련"이었다는 것이다. 북(조선)은 "이 나날에 한 나라가 몇백년 걸쳐서야 겪어볼 수 있는 최대의 고난과 시련을 당해보았고 우리는 또한 이 조국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면서 남들이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운명의 막바지에 서보기도 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에서 지난 5년간은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고 적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김정일 총비서의 인민경제부문 현지도가 자강도, 량강도, 함경남북도 같은 북부지역에 주로 집중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남부지역의 주민보다 더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북부공업지대의 노동자들은 같은 북부지대의 농업근로자들이나 남부 평야지대의 주민들보다 더 심한 식량난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조선)에서는 식량을 각 도마다 자급자족 하도록 되어 있는 데, 북부지역에서는 험준한 산악지형과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조건 때문에 원래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으므로 남부의 평야지대에서 수송한 식량을 공급받아왔고 농사에 요구되는 비료도 마찬가지로 해결하였다. 또한 평야지대에서 생산한 식량과 비료를 철도수송이 거의 불가능한 북부산악지대에 보내는 일은 화물차수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극심한 유탄부족으로 화물자동차마저 정상적으로 오갈 수 없게 되자, 북부지대는 남부 평야지대에 비해서 더욱 심한 식량난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에 대한 북(조선)의 자체 평가는 외부의 시각에서는 놀라우리만치 긍정적이다. "보통의 상식으로 볼 때 이런 시련에 부닥치면 혁명은 벌써 몇 년이나 좌절될 수 있고 나라에는 침울한 공기가 감돌고 신심을 잃은 사람들의 한탄과 눈물이 흐를 수 있겠"으나, 그 "행군길에서 우리는 50년 역사를 가진 자기의 국기와 국장도 지켜냈으며 소중히 가꾸어온 아름다운 사회주의 생활도 지켜냈다"고 한다. 저들은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궁지와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저들은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혹심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난관 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주체조선의 존엄을 높이 떨쳐온 것은 역사의 기적"이라고 칭송하면서, '고난의 행군'이 "수많은 자력갱생 모범단위들이 배출되고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혁명적 기풍이 높이 발휘"된 "자력갱생의 행군"이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과정에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참뜻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었고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강한 생활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이제 "조선인민은 세계사적인 고난을 이겨낸 강한 인민이 되었고 우리 조국은 역사의 대시련을 돌파한 강대한 나라로 되었다"고 기록했다. 북(조선)은 1997년 12월에 '고난의 행군'을 마감하였다. '고난의 행군'을 마감한다는 의미에는 그 기간에 겪었던 집단적 경험을 총화하고 자력갱생의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의 위훈과 공로를 인정·치하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1998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는 '전국 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소집되었던 '전당 당일군회의'에 이어서 열렸다. 북(조선)은 이 회의와 대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전국 당일군회의'는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는 회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서는 국가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는데, 23명에게 로력영웅 칭호와 함께 금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주어졌고, 약 3천명에게 각종 훈장, 표창, 공훈칭호가 주어졌다. '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는 그 뒤로도 각 지방, 각 부문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로동신문』은 '전당 당일군회의'와 '전국 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는 "여러해째 계속된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운 고비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제기고 강성대국에로의 힘찬 진군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가장 엄혹한 시련이었던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난관과 역경을 넘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북(조선)의 실상을 알고자하는 사람들, 북(조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물음을 고찰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21세기의 북(조선)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며,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 이 글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나온 『로동신문』을 분석하면서 이 물음을 고찰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알려진대로, 『로동신문』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언론매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의 당보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도보다도 인민에 대한 교양과 선전을 더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보의 교양과 선전 속에는 객관적 사실이 배경으로 깔려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객관적 사실을 찾아내어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한 사실과 교양·선전이 어떠한 의미체계로 결합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 이것이 북(조선)의 현실에 접근하는 길이다. 북(조선) 정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로동신문』을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문헌으로 삼아야 하는 까닭은 외부에서 북(조선)의 현실로 다가서는 통로가 『로동신문』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북(조선) 정세를 인식하는 것은 순쉬운 일이 아니다. 북(조선) 연구자들은 방대한 분량의 『로동신문』을 입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입수한다고 해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는 일도 힘들므로 이를 기피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형편이므로 북(조선) 정세에 대한 인식은 거의 공백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문제는 이 공백이 반복논리에 뒷받침을 받은 자의적 해석과 오류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반복논리가 체질화되어 있고 북(조선)에 관한 오보가 거의 일상화되다시피한 보수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연구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단편적인 사실을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베이징과 연변에서 떠도는 탈북자들의 유치한 만화 같은 뜬소문이나 삼류 피기소설 같은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 공백이 너무 크고 너무 오랫동안 자리잡아왔기 때문이다. 북(조선) 정세인식의 공백을 메우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몫이다.

## (2) 현지도와 '선군혁명령도'

이 글은 북(조선) 정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정일 총비서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을 중시한다. 그 까닭은 일본의 북(조선) 연구자 스즈키 마사유키(鐸木昌之)의 표현대로 '수령제 사회주의'인 북(조선) 체제가 김정일 총비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려진대로, 북(조선)에서 '수령의 현지도'는 국가와 사회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중대한 정치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조선)은 때로 그들이 위기와 난관을 겪어야 했을 때, '수령의 현지도'가 이를 극복하는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고 믿고 있다. 이것은 북(조선)만이 지니고 있는 국정운영의 독특한 전통일 것이다. 지금 김정일 총비서의 국정운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지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 김정일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로 1998년 2월 15일 현재까지 30여년동안 현지도한 날은 모두 3천6백93일(10년 이상)이며 그 중에서 명절날과 일요일에 현지도한 날자는 모두 9백97일(약 3년)이 되며, 현지도 거리 총연장은 14만7천9백90여리에 이르고 현지도한 단위는 2천1백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로동신문』을 살펴보면, '전환기'였던 1998년에 김정일 총비서의 현지도가 모두 59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부문에 대한 비공개 현지도가 얼마나 더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59차례의 현지도 가운데서 군사부문 현지도가 28차례로 가장 많았고, 문예공연 관람이 14차례였으며, 인민경제부문 현지도는 9차례로 나타난다. 김정일 총비서는 1998년 한 해동안 자신이 군사부문 현지도에 집중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이기고야 말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를 계속 인민군 군부대들에 대한 현지도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조선)은 그의 "끊임없는 전선시찰은 단순히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며, "여기에는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주력군, 기둥으로 내세우고 온 사회의 혁명적 군인정신화, 군민일치화를 실현하여 우리 혁명대오를 강철의 정예대오로 만들려는 전략적 의도와 확고한 의지가 깃들여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김정일 총비서의 군사부문 현지도는 '군사중시사상'과 '선군혁명령도'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이다. 『로동신문』은 김정일 총비서의 '군사중시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어'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었으며,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었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식 사회주의는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나가는 것"은 김정일 총비서의 "독특한 령도방식"이라고 한다. 북(조선)은 왜 군사를 중시하는 정치와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제국주의의 포위 속에서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강력한 군대가 없이는 인민도 없고 사회주의 국가도, 당도 있을 수 없다"고 한 김정일 총비서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조선)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당은 무엇보다도 먼저 총대를 틀어쥐어야 하며 그 누구보다 군대를 믿고 그에게 의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북(조선)의 주장에 따르면, "150년의 공산주의 운동사는 이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공백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군대관과 관련하여 맑스-레닌주의가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적은 아래와 같이 계속된다.